

人間知能 대신 할 소프트웨어開發을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범주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이것을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광의로 해석할 때 소프트웨어의 세계는 인간의 思惟의 세계, 즉 정신과 심리의 세계라고 파악하고 싶다.

사람에 비유한다면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이고 정신적면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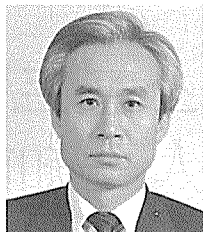
과거의 인간문명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분야의 개발에 치중되어 왔으며, 금세기에 이르러서 소프트웨어부문의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인간두뇌조직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컴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한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기존의 작업용 및 공업용 기계에 컴퓨터가 결합됨으로써 自動化기계의 개발이 양적·질적인 면에서 대단히 활발해지고 있다.

컴퓨터를 결합하면 어떻게 하여 기계가 자동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 의문의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상준
삼성데이터시스템 이사



바로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인간이 두뇌를 가지고 있더라도 教育을 통하여 지식을 축적하여야만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듯이 컴퓨터도 이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공작기계와 컴퓨터를 결합시키고 여기에 그 기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附加한 것이 로봇이다.

세계각국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일을 대신하고, 인간과 같이 思考하고 판단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인간지능을 대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이상적인 소프트웨어가 바로 人工智能(AI)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미래의 인간사회와 산업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우수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실생활에 이용될 때 그 지능수준에 따라 로봇을 支配하는 사람과 로봇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컴퓨터, 通信, 그리고 소프트웨어기술의 발전은 도래할 사회에 대한 인간의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어 우리는 미래사회에 대처할 文化社會的研究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